

## “ 교도소 수감자 교회 세우기 ”

### ■ 이종윤 원로목사

가난과 사회적 여건이 범죄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주 동기가 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가 훨씬 높은 현대사회에 범죄의 빈도와 범죄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것이 바로 범죄를 불러오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 해결을 해야 한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다. 이것은 어느 시인의 서사시가 아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가 죄의 포로가 된 다른 수감자에게 이천년 전에 보낸 서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된 사람의 인생관은 자기를 위한 야만인 같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혁명적 변화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같은 내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dunamis)을 받는다. 이 헬라어 dunamis를 영음화 한 것이 다이나마이트다. 큰 바위를 깨뜨리는 위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성경)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도소의 수용인이나 이 세상에서 활보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세가지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빌딩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건물로서의 교회가 언급된 것이 없다. 베드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있을 후 주님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마 16:16,17) 말씀하셨다. 여기서 교회(ekklesia)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백성이다. 교도소 내에 건물로서 교회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는 존재한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일세기부터 불려왔다. 그러므로 교도소 교회는 세울 수 있다. 둘째, 교회는 기분이나 감정을 좋게 하는 치유소인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곳이 교회다. 마음의 평안을 위한 곳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곳이 교회가 아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New Age그룹들은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인본주의적 교회로는 자신의 죄의 실체에 직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도 진정한 회개도 없다. 셋째, 현대 교회는 얼마나 성장하여 대형화 되었느냐를 소위 성공적 목회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예산 총액, 건물 크기, 회중 수,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에 대해 강조를 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못한다는 등식을 믿는 것이 문제다. 목사는 성장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소위 명설교를 하여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데 있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데 있지 않다. 행복한 교회 만들기엔 초점을 맞춘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도 100명만 갖는다면 지옥의 터를 흔들 수 있고 영국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교도소에 있는 교회는 더 큰 건물이나 예산의 성장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까지 내 생애에 자유는 없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도소에 복음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를 교도소에 세워야 한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도우라. 교도소에서 그들이 출감할 때 그들이 교회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밖에서는 부르심도 제자 됨도 복음 증거의 사명도 확인할 수 없다. 성도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한 이들이 전에는 죄사술에 묶인 이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교제를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로마 감옥에 끌려가 죄수로서 채찍과 심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 오늘도 갇힌 이들 중에 계시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신 주님을 위하여 군부대나 학교와 마을에처럼 교도소마다 주의 교회를 세우자.

-한국장로신문 [제 1356호] 2013년 2월 23일 발췌-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새로 강화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존중하여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시작 5분 전부터 기도도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712\\_sermon.jpg](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712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b>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② <b>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③ <b>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b>서울교회QR코드</b>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전도사</b> 박미라 <b>선 교 사</b>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펜, 사지, 에녹(인도), 스토르(투버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버섯, 알로롱, 비사(뽀뽀, 보디소프, 린롱, 수만준(벵골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찬(홍성인(필리위),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b>교육전도사</b> 김은숙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www.iseoulchurch.or.kr/">http://www.iseoulchurch.or.kr/</a>	

## “ 여호와께 감사하라 ”

■ 시 106:1-3  
 신약의 교회를 이룬 사도들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한 적은 없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맥주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절에만 국한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측면입니다.

1. **여호와만이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다.**  
 시편 106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크고 강한 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믿음만한 유일한 신적 존재이십니다. 시편 기자도 106편을 노래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2.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분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역시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로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때가 되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호와께 합당한 감사는 그의 행적을 전파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구원받은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자손들에게 만방에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죄인들의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일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치고 찬송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3절). 성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신령한 교제를 즐거워하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맺는 말**  
 감사는 감사절에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할 일입니다. 감사할 것을 낱알이 세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더욱 풍성한 감사가 솟아날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이고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나라 시민답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11시20분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6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4(시 2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67(3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3: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2)”...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455(50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금주의 성구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전 3:1)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34:2-3 ..... 인 도 자  
 찬 송 ..... 212(347)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히 13:7-19 ..... 인 도 자  
 설 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2)” ... 인터넷 영상  
 찬 송 ..... 320(350)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결 혼

1. 정성우 군(7교구 정인건 성도, 남영주 권사의 장남)과 박경민 양(박성기 성도, 서은원 권사의 장녀) / 7월18일(토) 오후 1시 엔씨소프트 지하 1층 컨벤션 홀(02-6201-8407) / 신분당선 판교역 4번 출구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37명	225명	1,462명	1,494명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7/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5일	헌 금	52,804,600	
	찬양운영비		1,000,000
	교회학교운영비		542,600
	선 교 비		700,000
	구 제 비		2,000,000
	경 조 비		480,000
	출 판 비		1,530,000
	복리후생비		72,500
	통 신 비		1,259,210
	수도광열비		198,610
	차량유지비		438,970
	소모품비		392,900
	수선유지비		487,000
	식당운영비		712,350
	합 계	52,804,600	9,814,140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